

## WCRC 제27차 총회 총무 보고

세계개혁교회연합은 1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당시 세계개혁교회연합의 사무총장이었던 마르셀 프라데르방드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쓴 역사서 제목을 "봉사의 세기"로 정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150년의 봉사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를 시작하며 창립부터 이번 150주년까지 우리 삶의 주요 특징을 간략히 되짚어 보려 합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증언을 견지하도록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창립 초기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미 고백적 교회로서 개혁주의 가족, 특히 소수자로서 운영되는 작고 약한 교회들을 강화하는 데 헌신하는 동시에 기독교 일치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개혁주의 목소리를 강화하겠다는 이 헌신, 그리고 개혁주의가 에큐메니칼(교회일치운동)적임을 이해하는 우리의 인식이 1910년 에든버러 선교회의를 비롯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다양한 기구에 참여하게 했으며,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창립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긴밀히 협력하게 했습니다. 동일한 헌신으로 우리는 세계선교협의회(CWM) 및 기타 기독교 세계 공동체들과 함께 하는 사역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헌신으로 장로교 연합회는 1970년 국제회중교회협의회와 통합했으며, 세계개혁교회연합은 2010년 개혁교회에큐메니컬협의회와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악과 불의가 우리를 둘러쌀 때 침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소외된 자, 취약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은 강력한 세력들이 불의한 정치·경제·군사·종교 체제를 통해 수많은 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변화의 도구로 서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도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1880년대, 베를린에서 식민주의가 공식화된 지 불과 몇 년 후, 세계교회협의회는 식민주의의 악에 맞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형태의 권위주의가 등장했을 때도 우리 교단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반 아르메니아 대학살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1925년 웨일스 카디프에서 열린 총회에서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 교수는 대표들에게 독일에서 등장한 고백교회(Confessing Church)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촉구를 통해, 그리고 1930년대와 1940년대 내내, 세계교회동맹은 나치즘의 추악한 얼굴에 맞서 예언적 증언을 위한 강력한 입장을 취했으며 고백교회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입장은 북미에서 바르멘 선언을 대중화하는 데 연합이 주요 역할을 하게 했다. 연합은 나치 학살의 희생자들과 함께하며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우리는 유대인이나 그 어떤 민족 집단에 대해서도 그러한 악이 다시는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언해왔다.

성별 정의의 등대가 되기 위한 우리의 첫걸음은 192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1954년 프린스턴에서 열린 총회에서 큰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 '행동하고, 도전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현재의 입장을 발전시켰으며, 이는 성별 평등과 균등에 관한 신앙 선언으로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인종차별과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 연합회는 1950년대부터 성찰과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1982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총회는 아파르트헤이트를 죄악으로, 그 신학적 정당화를 이단으로 선언하며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1934년 바멘 선언 이후 그랬듯,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가 남아프리카 연합개혁교회가 선물한 벨하 신앙고백을 보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동시대에 우리는 경제적 불의와 기후 불의에 내재된 악을 폭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제24차 총회에서 채택된 아크라 신앙고백으로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 금융·경제 체제를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탄생했으며, 현재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기독교운동(CWM), 세계교회운동(WMC) 등 에큐메니컬 파트너들과의 공동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들은 지난 150년간 우리의 증언이 다뤄온 수많은 문제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각 시대마다 우리의 입장은 지지와 큰 도전 모두를 마주했지만, 우리는 인내했습니다. 교단은 예언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서는 길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한 것은 교단과 회원 교회들을 변화의 증인이자 도구로 부르셨던 하나님께 충실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믿음의 개척자이자 완성자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큰 도전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회원 교회들은 세속화와 다른 요인들로 인해 교회가 쇠퇴하는 환경 속에서 증인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신생 교회들로부터 잘못된 신학이 등장하여 우리 일부 교회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들은 중대한 갈등과 분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증언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징후를 살펴보면, 아크라 신앙고백을 작성하게 했던 경제적·생태적 환경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고통받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상당수는 여전히 소외된 상태입니다. 약 7억 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하루 2유로 미만으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책임과 지구의 자원을 잘 관리하라는 부르심을 소홀히 한 결과, 우리는 기후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섬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탐욕과 재물에 대한 숭배가 많은 공동체를 사로잡은 반면, 그 공동체 내 소외된 이들은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냉소주의에 굴복하며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테니 우리만 살아가자"고 말할 것인가? 이러한 도전 속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듣습니다: 증언을 계속하라.

수만 명의 무고한 생명이 무분별하게 희생되는 분쟁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공모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상황, 그리고 중동, 특히 가자 지구에서 지속되는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세기 전 독일의 고백교회와 연대하고, 1934년 바르멘 선언에 고무되었으며, 아파르트헤이트의 악을 폭로하는 데 앞장섰고, 1986년 벨하 신앙고백을 환영했던 바로 그 조직입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어떤 민족도 다시는 말살당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유사한 잔혹 행위가 벌어지고 있을 때, 공동체가

강제 이주나 파괴의 표적이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유대주의와 가해자가 누구든 모든 형태의 집단 학살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 증언을 어떻게 견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이 우리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는 시기에 우리는 총회에 모입니다. 대표들은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분별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활발한 논의를 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이나 무관심은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끝날 때, 우리는 이 문제들을 씨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증언을 계속해 나가기로 새롭게 결심한 것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권력자나 영향력 있는 인물들, 이념적 집단이 아닌, 우리 믿음의 선구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공할 것임을 압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제26차 총회 이후 지난 8년간의 청지기 직분에 관한 보고를 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이 여정의 요약입니다. 포괄적인 그림을 얻기 위해서는 이번 총회에 제출된 다음 세 가지 보고 채널도 우리의 책임성 평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치앙마이까지: 각 총무 보고서는 집행위원회 회의록에 수록되었으며, 2024년 집행위원회 회의록의 책임 보고서를 함께 참고하십시오.

본 총회의 프로그램 관련 청취 세션에서, 제 동료인 집행서기들이 우리 업무의 일부 측면을 재조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모든 세부 사항을 철저히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세 차례에 걸친 지도부 아래 수행된 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밝힙니다. 첫째,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무로 재임한 크리스토퍼 퍼거슨 목사 박사는 제26차 총회의 결정을 전략과 프로그램 계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WCRC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임기 종료 시점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도전 속에서도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분기부터 2023년 말까지 WCRC는 한스 레싱(Hanns Lessing), 필립 비노드 피콕(Philip Vinod Peacock), 필 타니스(Phil Tanis), 무나 나사르(Muna Nassar)로 구성된 공동 사무국(Collegiate General Secretariat)이 이끌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동안 이 팀은 조직을 하나로 묶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리더십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총회 여러분도 함께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위원회가 저에게 사랑하는 이 교제 공동체로 돌아와 크리스와 우리 지도부 팀이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총회 사이의 8년이 의미 있게 채워지도록 할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여기에 언급된 다양한 지도자들 아래에서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 반영합니다.

2017년 WCRC를 이끌기 위해 선출된 분들의 탁월한 통치 없이는 우리 교단의 사역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나줄라 카사브 아부사완 총회장님의 리더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적인 전쟁 등 중대한 재정적·세계적 도전이 닥친 시기, 심지어 총회장

님 지역에서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단이 필요로 하는 지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는 데 보여 주신 헌신과 지혜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부회장들과 총무, 즉 본 조직의 임원진을 구성하는 분들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위원회 모든 구성원과 지역평의회 지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바로 본 보고서에서 언급할 수 있는 성과 뒤에 숨은 핵심 지도자들입니다.

2017년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제26차 총회 직후, 우리는 전략적 계획 수립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라이프치히 총회의 실행 항목들을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2018년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전략적 계획들은 지난 7년간 우리의 업무를 이끌어 왔습니다.

WCRC는 **2018-2024** 전략 계획을 헌장과 제26차 총회의 비전에 기반하여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교단이 교제(交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정의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변화를 추구함을 확인합니다. WCRC는 다양성 속의 일치, 경제와 지구의 갱신, 인간과 생태계의 완전한 번영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 전략 계획은 하나의 포괄적 목표를 확인합니다: WCRC는 분별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며, 함께 개혁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글로벌 교제 공동체로서 교제와 정의를 실천하는 데 더 강력하고 효과적이기를 지향합니다. 회원 교회들을 섬기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WCRC는 불의로 특징지어지는 세상에서 변혁을 추구합니다.

간단히 말해, 전략 계획은 우리의 소명을 네 가지 동사와 다섯 가지 행동으로 요약합니다.

동사:

분별하기

고백

증언

개혁됨

행동들:

의로운 교제 함양

정의를 위한 언약

변화를 위한 신학 실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기

하나님이 주신 모든 파트너와 협력하기

우리의 소명과 모든 프로그램 수행 방식은 이 네 가지 동사에 부합합니다. 다섯 가지 행동은 다섯 가지 프로그램 영역을 통해 구현되며, 각 프로그램은 네 가지 동사를 표현합니다. 각 행동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로운 교제 함양

교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의 사랑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고 구속하며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교제 안에서 사는 것은 평등, 포용, 정의, 다양성 속의 일치로 특징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선물이자 소명입니다. 예배를 통해 유지되고, 정의로 표현되며, 배제와 분열을 거부하는 관계 속에서 구현됩니다. 이는 고백과 분별, 그리고 하나님의 화해하시는 사랑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며, WCRC의 정체성인 "교제에 부르심을 받고 정의에 헌신하는" 것을 확증합니다.

청년: WCRC는 모든 수준에서 청년 참여에 깊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흔드는 것: 청년과 에큐메니칼 사명"이라는 주제로 2024년 청년 정상회의를 계획하여 청년 리더십을 통해 교제를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자금 제약으로 정상회의는 열리지 못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청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글로벌 신학 연구소 및 인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은 젊은이들의 에큐메니칼 형성을 촉진합니다. 지난 총회 이후 매년 두 명의 젊은이가 WCRC 하노버 사무소에서 1년간 머물며 자신의 은사를 기여하고 교회나 에큐메니칼 운동의 다른 표현체에서 섬기기 위한 실무 기술을 배우도록 초대됩니다. 현재 스코틀랜드 교회와 한국 장로교회의 두 젊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지 롬바드 상: "변방에서의 에큐메니즘: 도둑들 사이에 떨어진 세상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고백하며"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공모했습니다. 세 개의 상과 한 개의 입상작이 선정되어 정의와 주변화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강화했습니다.

인간 성(性): 인간 성, 정의, 포용을 주제로 한 세 차례의 협의(2017-2025)가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첸나이 협의는 교제에 초점을 맞췄으며, 2023년 하이데라바드 협의는 정의를 강조하고 성(性)을 신성한 선물로 확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LGBTQ 개인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교회에 회개, 옹호, 포용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방콕 작가 워크숍은 교회를 위한 연구 자료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 2022년 『개혁 세계』 (*Reformed World*) 특집호 "교회와 장애의 교차점"은 장애인과 옹호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총회를 위해 작업 문서 "장애: 교회의 사명"이 작성되었다.

원주민: WCRC는 아시아(2022)와 뉴욕(2023)에서의 협의를 통해 원주민에 대한 약속을 발전시켰습니다. 회개, 화해, 재분배적 정의라는 주제가 논의를 이끌었으며, 그 결과 2025년 총회를 위한 강의 계획서, 신학적 성찰, 작업 문서가 마련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 예배: 로마, 자카르타, 그랜드 케이먼에서 열린 글로벌 종교개혁 주일 기념 행사는 생중계 예배를 통해 회원 교회 간 공동 예배와 교제를 촉진했습니다.

회원 교회 및 지역 연대: WCRC는 방문 및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전역에서 관계 강화, 일치 증진, 교회 갈등 중재를 수행하며 세계 개혁주의 가족 내 정의, 평화, 증언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했습니다.

## 정의를 위한 언약

WCRC는 개혁교회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유산인 정의에 헌신합니다. 이러한 헌신은 경제적, 사회적, 성별적, 생태적 정의에 대한 변혁적 개혁을 주장하는 아크라 신앙고백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2017년 라이프치히 총회 이후 WCRC는 끝없는 성장에 집착하는 경제 체제가 초래한 기후 위기 등 시급한 문제들을 다루며 정의에 대한 약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경제적·기후 정의:** WCRC는 노동과 자원을 포함한 삶의 모든 측면을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자본주의의 파괴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이 체제는 여성, 인종화된 공동체, 원주민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크라 신앙고백은 경제적 착취와 생태계 파괴를 연결하며, 이러한 불의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아크라 플러스 20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는 아크라 신앙고백의 현대적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역 및 글로벌 협의로 구성됩니다. 이 협의는 성과를 축하하고 불의에 가담한 점을 고백하며 정의 실현을 다짐하는 과정을 거쳐 소책자, 학술 출판물, 그래픽 노블, 학습 가이드 등의 자료로 결실을 맺습니다.

**NIFEA 이니셔티브:** 새로운 국제 금융 및 경제 구조(NIFEA) 이니셔티브는 다른 에큐메니컬 단체들과 협력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개발하며, 과세, 부채, 경제 거버넌스 등의 문제를 다룹니다. NIFEA의 일부인 GEM 스쿨은 교회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에게 경제 정의를 교육하여 체계적 변화를 옹호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캠페인 및 옹호 활동:** 삭개오 세금(ZacTax) 캠페인은 누진적 부유세, 세금 회피 구멍 차단, 금융 거래세 등을 포함한 세금 정의와 사회적·생태적 부채에 대한 배상을 촉진합니다. 2025년 시작된 '부채를 희망으로 전환하라(Turn Debt into Hope)' 캠페인은 부당한 부채 탕감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개혁을 옹호합니다.

**성평등 정의:** 2020년 채택된 WCRC 성평등 정책은 교회 사역에 남녀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합니다. 2024년 성평등 감사 보고서는 교회 지도부 내 심각한 성별 격차를 지적했습니다. 잠비아 루사카 등에서 열린 지역 협의회를 통해 교회 내 여성 안수와 지도력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인종주의, 권위주의, 민족주의:** WCRC는 협의와 학술적 성찰을 통해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다루며, 달리트와 흑인 신학자 등 소외된 공동체의 경험을 불의에 대처하는 전략적 방안과 연결합니다.

**제국과 집단학살:** 나미비아에서 열린 협의는 집단학살 이후 상황에서 지속되는 정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부각하며, 교회가 집단학살을 인식하고 반대하는 역할과 현대적 잔혹행위를 식민지 유산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변화를 위한 신학 실천

WCRC는 지난 8년간 인내, 정의, 변혁을 중심으로 신학적 작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코로나 19 팬데믹과 진보적 운동에 대한 전 세계적 반발 속에서 교단을 이끌어 왔습니다.

신학 교육 회의: WCRC는 루터교 세계 연맹, 독일 개신교 교회 및 선교 협회, 그리고 이후 세계 교회 협의회(WCC)와 협력하여 아크라에서 "팬데믹과 교육학"(2022)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81명의 교육자들이 코로나19가 신학 교육을 어떻게 재구성했는지 탐구했습니다. 이 회의는 접근성, 배제, 디지털 불평등,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존재, 부재, 현대의 균형을 다루는 데 있어 신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변혁적 교육학은 교육자들의 재교육, 다양성 수용, 포용적 디지털 관행 함양을 요구합니다.

종교와 신앙의 자유(FoRB): WCRC는 루터교 세계 연맹과 협력하여 협의회를 통해 세계 인권 선언 제18조를 논의했습니다. FoRB가 취약 계층을 보호하지만 참가자들은 이 조항이 민족주의적 또는 인종주의적 의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협의회는 다음을 강조했습니다:

- 프레임워크는 취약 계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인종, 성별, 카스트, 계급, 성적 지향 등 교차하는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 종교는 종종 경제적·정치적 갈등의 표지가 된다.
- 종교적 민족주의는 정체성을 권위주의적 권력과 결합시켜 FoRB를 위협한다.

#### 니케아 프로젝트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계기로 WCRC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니케아 신조를 재검토했다. 칼뱅의 "신조를 성경과 맥락에 비추어 검증하라"는 조언에 뿌리를 둔 WCRC는 『오늘날 니케아를 받아들이기: 개혁주의 관점의 글로벌 목소리』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전 세계 36명의 저자들이 기고했으며, 그 중 절반은 탈식민 신학을 강조하는 글로벌 남부 출신이다. 여섯 개의 섹션은 해석학, 제국, 통치, 증거, 예배를 다룬다. 개혁주의 해석학은 신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분별과 갱신의 기회로 여긴다. 이 기념일은 상처 입은 맥락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신앙을 재표현할 기회로 제시된다.

#### 글로벌 신학 연구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기되었던 글로벌 신학 연구소가 마침내 2023년 피지 수바에서 "불안정한 세상에서 말씀을 뒤흔들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27명의 학생들은 설교가 권위주의, 정치화된 종교, 배제를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는지 탐구했다. 참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변혁적이라고 평가했다.

#### 개혁주의 세계 저널

2019년 WCRC는 신학 저널 『개혁주의 세계』의 편집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이 저널은 개혁주의 및 에큐메니칼 학문, 예술, 증언을 위한 글로벌 포럼을 제공하며 현대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호에서는 교회와 장애, 에큐메니컬 대화, 신학 교육, 주요 지도자들에 대한 추모 등을 다뤘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지연에도 불구하고, 이 저널은 다양한 맥락적 목소리를 계속 담아내며 WCRC의 정의 실현을 위한 언약 사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기

WCRC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명에 부르심을 받았으며, 사명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교제 공동체로서 WCRC는 일치 안에서 사명을 강화하고, 21세기

교회 사명을 효과적이고 관련성 있게 만드는 성찰을 촉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변화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은 WCRC와 그 회원 교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사명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교회를 특히 위기 상황 속 주변부로부터의 사명을 통해 갱신과 변혁에 헌신하는 선교적 교제 공동체로 변화시킵니다.

WCRC의 선교 및 옹호 접근법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며, 가난하고 궁핍하며 억울한 이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연대를 선언하는 벨하(Belhar)와 아크라(Accra) 신앙고백과 같은 고백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개혁주의 참여 옹호 플랫폼(GRAPE): "지역에서 세계로, 다시 지역으로"(L2G2L) 옹호 모델을 따르는 GRAPE는 지역 교회들이 효과적인 옹호자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합니다. 시범 국가(케냐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행되는 이 5년간의 훈련 프로그램은 지역 팀들이 옹호 캠페인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케냐에서는 기후 정의의 문제로 깨끗한 물 접근권 확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극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UBI)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플랫폼은 교회, 시민사회, 종교 기반 단체들을 공동 목표 아래 하나로 모읍니다.

옹호 활동의 신학: WCRC는 옹호 활동을 신앙의 핵심적 표현으로 이해하며, "억울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 서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최근 협의에서는 신학과 옹호 활동 실천의 탈식민화를 강조하며, 체계적인 권력 불균형에 맞서지 못하는 서구 중심적 틀에도 전했습니다.

평화와 화해 이니셔티브: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WCRC는 행동 55를 채택하고 교육, 신학적 성찰, 옹호를 위한 포괄적 자료인 '포커스: 팔레스타인'을 제작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국주의적 서사를 해체하고,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기독교 시온주의 신학을 비판하며, 연대적 예언적 행동을 촉진합니다. WCRC는 점령 종식을 주장하는 기독교 운동인 카이로스 팔레스타인과 협력합니다.

우크라이나: WCRC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교회 지원을 조정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아크라 신앙고백의 '제국' 분석에 기반한 이 입장은 국제 질서의 실패를 비판하면서 부활의 희망에 뿌리내린 적극적 비폭력적 인내와 평화 구축이라는 '제3의 길'을 옹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파트너와 함께 일하기

에큐메니즘은 개혁주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끊임없이 개혁됩니다. 기독교 지형은 글로벌 남반부의 성장, 교단 간 유대 약화, 기독교 세계 구조의 쇠퇴로 변화했습니다. WCRC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에큐메니컬 개방성은 신학적 명령이자 실천적 필수 사항입니다.

주요 협력 관계:

세계교회협의회(WCC): 기독교 일치, 정의, 증언에 관한 오랜 협력 관계로, NIFEA 이니셔티브 등 공동 옹호 활동을 포함합니다. WCRC는 2022년 카를스루헤 총회에 참여했으며 널리 인정받는 출판물 "Come Join the Circle"을 기여했습니다.

세계 선교 협의회(CWM): 공동 사명과 정의에 기반한 역사적 파트너십으로, NIFEA, 부채 및 암호화폐 협의, 젠더와 군사화, 제국과 집단학살 이니셔티브 등에서 협력합니다.

로마 개혁 에큐메니컬 사무소(2022년 설립): 스코틀랜드 교회 및 발도네 교회와 협력하여 로마 내 개혁주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평화와 정의를 위한 공동 행동을 모색합니다. 주요 활동:

바티칸과의 연락: 주교 시노드 참여, 시노달리티, 여성 지도력, 평신도 사역에 관한 대화.

교황청 문서성(DPCU) 및 기타 교황청 부서와의 협력.

로마 성공회 센터 및 감리교 에큐메니컬 사무소와의 정기적 협력.

기독교 일치에 관한 기도 주간 웨비나 개최 및 방문 지도자 지원.

이주, 이동성 및 이들이 신학과 에큐메니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제2차 개혁주의 에큐메니컬 심포지엄(2024년 개최 예정).

의화 교리 공동 선언(JDDJ): WCRC는 2017년 로마 가톨릭, 루터교, 감리교, 성공회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개혁주의의 기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롭다 함과 성화가 불가분하다는 합의 확인.

은혜와 성사에 관한 JDDJ의 통찰을 높이 평가함.

개혁주의적 강조점 추가: 삶을 위한 지침으로서의 율법, 감사로서의 성화.

의롭다 함을 정의와 연결: 억압과 폭력 해결과 불가분의 관계.

공동 증언, 세례식 거행, 공동 선포에 헌신한 다섯 교단. 코로나19로 지연된 후 2024년 10명의 신학자로 구성된 새로운 JDDJ 작업 그룹과 논의 재개.

에큐메니컬 대화: 신학적 대화는 가시적 일치, 상호 인정, 정의와 평화를 위한 공동 증언을 탐구합니다. 보고서는 WCRC와 협력 교회 전반에 걸쳐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국제 개혁교회-성공회 대화(IRAD): "교제: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 보고서는 교제를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한대에 뿌리내린 것으로 강조합니다.

오순절-개혁교회 대화: 오순절 세계 연합회와 WCRC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심"은 사명 속 일치, 성령 분별, 불의 해결, 공동 하나님 섬김을 다짐합니다. 4차 대화는 교회 이해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메노나이트-개혁과 대화: 성명서 "우리 가족의 온전함 회복"은 과거 박해를 고백하고 화해를 다짐합니다. WCRC와 메노나이트 세계 연합(MWC) 양측의 통치 기관에서 채택되었습니다. WCRC는 독일에서 열린 MWC 평의회 회의와 취리히 재세례파 세례 500주년(1525-2025) 행사에 참여했으며, 발 씻음과 같은 상징적인 치유의 행위를 포함했습니다. 이 행위는 이번 총회에서도 재현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2020년 3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교회, 사회, 경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질병, 사망, 거리두기 규정, 소득 감소에 직면했으며, 다수 국가의 의료 체계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취약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으며 글로벌 연대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WCRC 프로그램, 회의, 모임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 상호 돌봄, 연대, 성찰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WCRC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를 위한 분별, 고백, 증언"(2020년 12월~2021년 11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미가 6:8을 바탕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 인종차별, 권위주의, 기후 위기로 특징지어지는 이 시기에 교회들이 정의를 추구하고, 친절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기는 카이로스 순간, 즉 체계적 불의가 드러나고 변화의 기회가 찾아온 때로 묘사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전례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대림절/주현절(분별), 사순절/부활절(고백), 성령강림절(증언), 평년(개혁됨). 각 계절마다 전체 회의, 지역 및 네트워크 공유, 분별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유럽 등 전 세계 교회와 단체들이 고통과 회복력을 동시에 강조하는 경험과 신학적 성찰을 공유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네 가지 동사에 대응하는 네 주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분별의 원, 고백의 원, 증언의 원, 개혁되는 원. 신학적으로 참가자들은 세례가 교회를 타자성을 포용하고 정의가 중심이 되며 모두가 공동의 식탁을 나누는 급진적인 새 공동체로 부른다고 성찰했습니다. 개혁됨은 인종주의, 가부장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같은 죽음의 체제에 저항하고 생명과 존엄이 확인되는 하나님의 가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프로그램 작업문서는 교단의 집단적 통찰을 요약했다. 코로나19는 '위대한 평등화자'가 아니라 고착화된 불의를 드러낸 계기였다. 이 사태는 가난한 이들, 인종적 소수자, 여성, 주변화된 공동체가 가장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을 폭로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과 연관된 기아, 빈곤, 성별 기반 폭력이 바이러스 자체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이 위기는 제국에 저항하고 연대를 포용하며 정의가 신앙의 핵심임을 선포하는 고백하는 교회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 증언은 체계적 죄악에 맞선 예언적 행동을 요구하는 반면, 개혁은 교회가 급진적 환대, 포용, 창조 세계 돌봄을 구현하도록 부른다. 종말론적 시대에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세계적 인종 차별에 저항하고, 애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해방하시는 영을 증언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개혁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다.

### 전략적 프로그램 기획 그룹(SPPG)의 동행

전략적 프로그램 기획 그룹(SPPG)은 7년에 걸쳐 전략적 계획의 실행을 동반했습니다. 그들은 평가를 수행하고 책임 보고서가 집행위원회에 제출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일부 평가 결과는 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지역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모델을 권고하며, 온라인 협력을 강조하고, 전략 계획 기간 중반에 시작된 글로벌 개혁주의 참여 플랫폼(GRAPE)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계획된 60개 프로그램 중 54개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와 인력 감축이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질은 인정받았으며, 파트너십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의 창의적 접근(예: PCUSA, CWM, 스코틀랜드 교회의 지원으로 신설된 임원직)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속적 및 향후 작업을 위해 SPPG는 지역 기구의 보다 깊은 참여와 집행위원회와 회원 교회 간의 보다 강력한 소통을 권고했습니다. 그들은 교제(커뮤니언)가 적극적인 지역 참여에 달

려 있음을 강조하며, 2025년 총회 및 그 이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에 주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지역 협의회

WCRC는 현재 5개의 지역 협의회(Regional Councils)를 운영하며, 각 협의회는 교단을 회원 교회에 더 가깝게 연결합니다.

**아프리카 개혁신교회 공의회(ACRC):** 두 차례의 공의회(2018년, 2023년)를 개최하고 WCRC의 우선 과제 및 프로그램에 회원 교회를 참여시키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장로교 및 개혁신교회 연합(AIPRAL):** 지역적 과제에 대응했으며, 2025년 2월 엘살바도르에서 개최된 최근 회의에서 아크라 신앙고백 2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카리브해 및 북미 지역 협의회(CANAAC):** 지난 총회 이후 두 차례 협의회 개최, 공동 경건의 시간 마련, 지역 내 WCRC 우선 과제 집중 추진. CANAAC는 WCRC 글로벌 사무국과 지역 기구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 강조.

**동북아시아 지역 협의회(NEAAC):** 역사적으로 신학적 성찰과 프로그램 통합에 적극적이었다. 2020년 이후 활동이 둔화되었으나 현재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WCRC 유럽:** 연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며 회원 교회 대표들과 함께 WCRC 우선 과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진행합니다. 해당 지역은 지속적으로 글로벌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지역 간 상호작용 강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재정

지난 총회 이후 WCRC 재정은 잘 관리되어 왔습니다. 수입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약 10개 회원 교회가 꾸준히 연회비를 납부하여 조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60개 교회가 비교적 정기적으로 기부합니다.

약 100개 교회는 불규칙적으로 납부하여 체납금이 누적되고 있으나, 일부는 지난 2년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집행위원회는 이 중 60개 교회를 비활성 교회로 지정하고, 기여금이 정산될 때까지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집행위원회는 회원 교회 개인들에게 교단 활동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10유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총회에서 재개될 예정입니다.

수입 문제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규율과 책임감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프로그램들은 제한된 재원으로 신중하게 실행되었으며 자금 출처에 대한 책임성을 유지했습니다.

### 회원 교회

회원 교회들은 교단의 주인입니다. WCRC는 회원 교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맥락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임원 및 직원들의 방문이 제한되어 이 기간 동안 방문한 회원 교회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WCRC는 회원 교회 방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사명을 경청하며, WCRC와 지역 평의회가 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과거 WCRC는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글로벌 남부 회원 교회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기금은 소규모 보조금을 제공하고 자연재해 및 긴급 상황에 대응했습니다. 해당 기금은 5년 전에 종료되었으나, 재정적으로 가능한 시점에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권고 사항

본 보고서를 제출하며, 보고서 전반에 걸쳐 암시해 온 세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 회원 교회 방문:

총무는 2026년 상반기 내에 신입 집행위원회 위원들을 파견하여 모든 회원 교회를 방문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당 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지역 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방문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방문의 목적은 교회들과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우선순위와 도전 과제를 이해함으로써, WCRC가 회원 교회와 더 넓은 대중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을 통해 얻은 교훈은 차기 전략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방문을 통해 비활성 회원 교회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회원 자격을 갱신하거나 WCRC에서 물러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문은 회원 교회들이 WCRC의 재정적 유지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건설해 나가야 할 교제 공동체입니다.

### 10유로 캠페인:

각 회원 교회가 최소 1,000명의 교인들에게 WCRC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또는 월간으로 10유로 또는 10달러 상당을 기부하도록 권면하는 '10유로 캠페인' 설립을 지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캠페인은 교단 전체의 재정적 지원과 참여를 강화할 것입니다.

### 개혁교회 협력 기금:

개혁교회 협력 기금 재설립 가능성을 모색할 것을 권고합니다. 10유로 캠페인이 연간 100만 유로를 달성할 경우, 수익금의 20%를 협력 기금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WCRC는 글로벌 남부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고 재난 구호 및 긴급 대응 노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감사의 말씀

앞서 저는 직전 사무총장, 공동 사무국, WCRC 총회장, 임원진 및 집행위원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본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그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노력하는 직원 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하노버 사무실의 직원 수는 아홉 명으로 적지만, 그들의 헌신은 놀랍습니다. 이 헌신적인 동료들이 WCRC의 사명을 추진하는 데 이룬 성과와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일들에 저는 여전히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무

나, 한스, 필립, 민우, 아남, 아르미타, 린다, 비엣에게 진심으로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에 하노버 개혁 영어 예배 공동 담임 목사인 첼시가 사무실에서 파트타임으로 하는 귀중한 일도 더해집니다. 또한 독일 레어 소재 복음주의 개혁교회 사무실의 동료들, 특히 게르하르트 플렌터가 이끄는 팀이 우리의 재정과 회계를 성실히 관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회원 교회들과 파트너들에게, 특히 우리와 함께 걸어오며 꾸준히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 주신 분들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WCRC를 지탱합니다. 독일의 라인란트 교회와 베스트팔렌 교회와 같은 비회원 교회들조차도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CWM, EMW, BfW, EKD, Otto per Mille 등 여기 언급되지 않은 많은 에큐메니컬 파트너들의 지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WCRC의 지도자로 섬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임원진 여러분, 집행위원회 여러분,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아크페네에게도, 제가 '에'라고 말할 용기를 낼 때 함께하며 지지해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6년 2월 1일부터 차기 총무로 이 조직을 이끌도록 부름받은 분을 소개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기쁨과 영광입니다: 제 친구이자 동료인 필립 피콕 목사님입니다. 필립 목사는 20여 년 전 성평등 정의에 관한 팀에 합류하도록 초대했을 때부터 알고 지낸 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가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정의를 향한 열정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를 만난 모든 이가 필립이 이 사역을 이끌고 WCRC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책임자임을 증언할 것입니다. 지난 16년간 저를 지지해 주셨고, 저보다 앞서 크리스를 지지해 주신 것처럼, 필립을 기도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가 이 리더십을 맡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증인의 면류관을 이루는 모든 이들과 함께, 우리는 도전과 때로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견지하며 먼 길을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의 증언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길이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믿음의 선구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참고: 본 문서의 다른 언어 번역은 DeepL의 도움을 받아 가능했습니다.